

목포시, 근대의상 패션쇼 연다

패션브랜드 슬링스톤과 업무협약...“글로벌 홍보” 패션쇼·근대역사문화거리 배경 영상물 촬영 지원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근대의상패션쇼를 연다.

시는 패션브랜드 슬링스톤(대표 박종철)과 ‘목포 근대역사문화 홍보를 위한 근대의상 패션쇼 및 패션영상물 제작’ 업무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국내 최고 패션업체와 젊은 세대 감각을 공략하는 트렌디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목포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세련된 방식으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슬링스톤은 패션쇼 의상·출연모델·연출촬영 등은 물론 패션 영상물을 제작해 목포시에 제공하고 미디어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한다.

시는 슬링스톤의 패션쇼 및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배경으로 한 영상물 촬영 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목포에서 근대의상 패션쇼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목포의 자원이 밀바탕이 됐다.

목포는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흑백TV를 보는 듯한 느낌의 복고와 현대를 동시에 즐기는 융합형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슬링스톤 대표인 박종철 디자이너는 이와 같은

매력을 가진 목포를 근대의상 패션쇼의 최적지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도쿄동 패션쇼, 광주패션위크, 뉴욕컬렉션, 한류페스티벌 등에서 패션쇼를 진행했고 K팝아이돌의 의상을 제작하는 등 세계적인 한국 남성복 디자이너다.

패션쇼는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30분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모델 26명이 출연하는 가운데 열린다.

1930년대 근대 빈티지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은 작품과 근대 오리진 의상 등 2점을 인트로에서 선보인다.

패션 영상물 촬영은 내년 1월 9~10일까지 목포 근대역사관1관-송자갤러리, 근대역사관2관 앞 도로변에서 모델 30여 명이 출연한 가운데 이뤄진다.

패션영상물은 목포시와 슬링스톤이 공동으로 소



목포시가 근대문화 글로벌 홍보 위해 근대의상패션쇼 연다. 사진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홍률(왼쪽) 목포시장과 박종철 대표.

유하는데 양측 모두 SNS 등 각종 매체에 적극 홍보해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국내외에 감각적으로 알린다.

박홍률 시장은 “패션쇼를 통해 목포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젊은 감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목포만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에 40년만에 영화관 생겼다

작은영화관 ‘기찬시네마’ 개관 3D 등 2개관 93석 갖춰 ‘아바타2: 물의길’ 상영중

1970년대 말 영암중앙극장이 폐관한 이후 40여년 만에 전남 영암군에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영암군은 영암읍사무소 앞에 작은영화관 ‘영암 기찬시네마’를 21일 개관하고, 개봉작으로 ‘아바타2: 물의길’, ‘영웅’ 등 최신영화를 상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은영화관 ‘영암 기찬시네마’는 93석 2개의 상영관(1관 58석, 2관 35석)으로, 제1관은 2D 및 3D 입체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영암군이 19억 8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26억 3000만원이 투입됐다.

영화 관람료는 일반 7000원, 3D 9000원으로

일반 영화관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전국 동시 개봉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벵기시네(www.petitecine.com 또는 APP)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도 사용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관람객들에 한해 영화관람권을 증정하는 개관 이벤트도 진행한다.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영화관 운영 전문업체인 ㈜성신알앤디를 운영자로 선정했다.

군은 ‘영암 기찬시네마’가 개관됨으로써 이제까지 군민들이 영화관람을 위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남녀노소 즐겁게 이용하는 실내 문화공간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화관 개관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군민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면서 “영화관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전국 첫 군민 전용앱 ‘해남 소통넷’ 인기

생활 민원·알림 등 실시간 확인...공공앱 탑재 주민 편의 높이 향우 등 누적 가입자 1만5000여명...지자체 유일 ‘유지’ 등급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중인 해남 소통넷이 뛰어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추진 및 정비계획 전수 분석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가운데 6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만 들어간 예산만 18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남 소통넷만은 달랐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한 유사 서비스 32건 중 31건이 ‘폐기’ 혹은

‘개선’ 등급을 받은 반면, 해남 소통넷은 유일하게 ‘유지’ 등급을 받으며 지자체 공공앱 성공적 운영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해남군 소통넷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된 군민전용 앱으로 내 고장 정보를 비롯해 생활민원서비스, 각종 알림정보, 마을소식까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누적 가입자 1만 5160명, 누적 게시물 수 약 1만 1000건, 하루평균 접속율 900명 등

큰 관심속에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 소통넷 내에 공공앱을 지속적으로 탑재해 군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중인 장난감도서관, 청년두드림센터, 해남사랑상품권,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다자녀사랑카드 등을 추가한다.

소통넷은 해남군민은 물론 향우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설치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소통넷을 검색, 앱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소통넷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선 8기 소통과 참여의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신학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

농림부 “체험·음식·숙박 1등급”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관광(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310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3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23개 마을이 ‘1등급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신학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전국 최대 난대



림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대상지인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양마을에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르딕워킹과 해초 비누 만들기, 전복 양식,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귀농 어귀촌인들이 ‘완도에서 살아보기’를 경험해 볼 수 있어 힐링 장소이다.

‘으뜸촌’으로 선정되면 현판이 수여되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어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사무장 활동비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본격 시행

신안군이 내년부터 주민공감 청소행정 실현과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는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배출방법은 배출자가 직접 인터넷 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으로 신

청하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방문 수거한다. 원형 훼손 제품, 전기 미사용 제품을 제외한 냉장고 등 중·대형 폐가전은 단일 수거 가능하며 오디오 등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수거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지도읍, 압해읍, 중도면, 임자면,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이며 연륙 된 도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라남도 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시행기관인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협업하여 임시보관장소와 지자체 확보 등 수거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폐가전 재활용 활성화로 세계 자연유산 신안군의 환경보호는 물론, 깨끗한 농어촌 환경조성과 1인 가구·노령인구 증가·가전제품 대형화에 따른 배출 불면 해소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돈돈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